

“ 부활절 : 믿음·소망·사랑이 다시 사는 날 ”

■ 이종윤 원로목사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힘 앞에 서 있다. 그 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찾아다니시는 분이다. 동서고금 춘하추동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 위대한 힘 앞에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흔히 산 설교를 듣는다. 많은 설교자들이 주지 못하는 큰 감화력을 갖고 있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목석 같은 사람도 마음이 뜨겁게 녹아 내리고 평시에 눈물 한번 없던 영웅호걸도 그 분 앞에서는 날 후회, 분노, 억울한 눈물을 터트리는 것이 상례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저지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분의 이 큰 마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관심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그 분이 누구일까? 어느 위대한 스승의 교훈보다 확실하고 과학의 힘으로도 그에게 대결할 수 없는 그 분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인가, 황금일까, 권력도 아니면 예수님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이 위대한 힘의 이름은 사망(死亡)이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 죽음을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아무도 없다. 이 사망과 연결된 것이 멸망이다. 이 죽음은 사탄의 영역에 속한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여 세상에 죄를 가져온 자가 사탄이다. 그 죄는 세상에 사망을 가져왔다. 사탄이 없었다면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사망은 악마의 대표작품이다. 인간 생명을 파괴시키는 사망이 우주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면서 사탄은 쾌재를 불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능력의 사자 모세도, 성군 다윗이나 지혜의 왕 솔로몬도 다 죽었다. 예녹과 엘리야 외에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이가 없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지진, 핵폭탄, 자연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져 올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즉 죽음이 찾아 왔을 때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죽어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쳤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만에 다시 사실 것을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세웠다.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공허한 진리일 뿐 생명 없는 종교다. 그러나 예수 부활은 예언대로 된 것이다. 목격자들의 역사적 증거가 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적어도 11번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기질설과 도적설도 있었지만 허망한 공론일 뿐이다.


앞면에서 계속

예수가 생전에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으나 빌라도는 부활이 두려워 수직자들로 하여금 삼엄한 경비를 하여 지키게 했다. 설령 군인들이 도적질 해 갔다 해도 예수 부활이 전해졌을 때 시체를 내어놓음으로 그 허망함 소식을 단번에 일축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다. 기절했다가 소생했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가설이다.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다시 사셨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매장(buried)된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면 기질설은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일 뿐이다. 무서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본 후 순교자가 된 것은 그의 부활을 확증한 것이다. 빈 무덤에 세마포가 정리되어 개켜져 있었고 천사들이 그의 살아나심을 증언했으며 초대교회는 수천년 유대인들이 지켜온 토요일 안식일을 예수가 부활하신 주일로 예배일을 바꾼 것이 예수 부활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환성을 울릴만한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 예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믿음과 소망은 죽었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남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까지 거기 있었고, 그 사랑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죽었던 믿음과 소망을 다시 살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면 믿음과 소망이 살아난다.

—한국장로신문 [제1315호] 2012년 4월 7일에서 발췌—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p> <p>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p> <p>선 교 사 강아굽주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료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라,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일(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땅, 땅, 썬, 코, 카, 마이, 땅, 사무알, 레이, 난, 썬, 썬다, 사무, 키움, 랑, 호라, 라비, 벨,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 미얀마, 필리핀, 프로산드, 수레시, 수바썬, 이경명, 알로롱, 비서, 누뽀도, 보디소프, 린툼, 수란찬(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 군선교</p>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 http://seoulchurch.or.kr	

“진리를 땅에 묻어둘 수 없다.”

-형벌대신 상금을 받은 군인들은 거짓을 유포했으나 우리는 영원한 상금을 소망하고 예수 부활을 선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주님을 못 박은 원수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는 사실은 흥미 있는 사건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절 새벽 해 뜨기 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 주님의 부활을 먼저 알았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전하는 천사를 보았다」 고 했다. 수직하던 군인들은 같은 내용을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보고했다. 주님을 못 박도록 한 이들은 예수는 세상을 뒤엎으려는 자요 모든 미풍양속인 전통을 파괴시키는 자이므로 위험분자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더욱 두려워했다. 그들은 예수를 무덤에 가두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군인들이 새벽에 찾아와 문을 노크하면서 무덤이 비었고 예수는 살아났다고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놀라고 또 놀랐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군인들이다. 그들은 이미 천사들로 인해 놀랐다(마 28:24)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떠난 후 빈 무덤을 보고 더욱 두려워했다. 업무태만으로 사형을 받을 지도 모른다. 그가 살아 있을 때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한 말을 기억하고 군인들에게 수직하도록 당부한 바도 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릴 것이 두려웠다. 군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 죽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더욱 엄습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숙의 후 군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도적질 해 갔다” 하라 했다. 그 일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권할 것까지도 약속해 주었다. 비록 교육수준이 낮은 당시의 군인들이라 해도 잠든 사이 도적질해 간 이들이 제자인지 어찌 알았는가? 그 중 한 사람이 깨어 있어 보았다면 다른 군인들을 왜 깨우지 않았다? 제자들이 시체를 안고 도망가려면 군인들 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았나? 더욱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나 시골사람들이다. 로마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 접근했다는 얘기부터가 무모한 조작이다. 제자들은 이미 수배대상이 되었을 터인데 도적질 해 갔다는 거짓말은 입증되지 않은 거짓 말이다. 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상금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입증된다.

19세기 불란서 카톨릭 이신론자 프랑신부는 예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의 환각작용의 결과라 했다. 마리아가 본 사람도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동산지기였다 한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신약에 11번이나 나타나셨고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환영보다 박해를 받았다. 거짓 아닌 진리를 전했으니 상금대신 형벌을 받았다. 체포되고 투옥되고 순교하였다. 진리를 땅에 묻어둘 수는 없다. 돈을 주고 시체를 도적질 해 갔다고 거짓을 유포했으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사망권을 깨치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다고 목숨보다 이 진리 전파를 사명으로 믿고 영원한 상금을 소망하는 천국시민들이 오늘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

